

# 필리핀 쇠고기 수급 및 유통 현황과 과제<sup>1)</sup>

허 덕\*, 김태련\*\*, 김수연\*\*\*

## 1. 머릿말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은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인구 증가율도 높아 최근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소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육 소비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와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쇠고기 소비량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필리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동시에 경제 성장에 따라 음식의 다양화도 진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규동(牛丼<sup>2)</sup>)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패스트푸드 체인도 진출하는 등 외식에서 쇠고기가 소비되는 환경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필리핀의 쇠고기 생산을 보면, 곡물비육장(피드롯, feedlot<sup>3)</sup>) 경영 등과 같은 대규모 경영을 하는 생산자도 일정 정도 비율이 존재하지만, 소규모 경영을 하는 생산자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체제가 확보

1) 이 글은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내용을 기초로 번역·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KREI 명예선임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 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 KREI 연구원, 축산관측 담당자

2) 규동(일본어: 牛丼) 또는 규메시(일본어: 牛飯)는 쇠고기에 양파와 함께 달게 끓인 재료를 그릇에 담은 밥위에 올려 먹는 일본의 덮밥 요리이다. 곁들이는 야채로는 붉은색 생강, 7가지 맛의 고춧가루(七味, 시치미), 날달걀 등을 기호에 따라서 넣는 경우도 많다. 메이지시대 서구문명의 도래로 쇠고기를 먹는 습관이 퍼진 뒤 대중에게 적합하게 고안되어 나온 규메시(牛めし, 쇠고기밥)가 규동의 원형이다. 1973년부터 요시노야(吉野家)가 패스트푸드의 하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어 마쓰야(松屋)나 스기야(すき家) 등 프랜차이즈들이 일본 내에 자리잡으며 일반화되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3)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 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관련하여, 세미피드롯이란 소 사육 일부 구간(특히 비육후기)에서만 feedlot 형태의 사육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실제로 생산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는 돼지와 닭고기 생산이 농민보호 정책으로써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다. 그래서 이들 품목은 모두 약 90% 정도의 높은 자급률을 유지해 왔다. 반면, 쇠고기는 자급률이 6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생산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국내 쇠고기 수요에 대해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자급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의 육우 생산 및 수입 현황을 통해서 필리핀의 쇠고기 공급의 수입 성향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0년 3월에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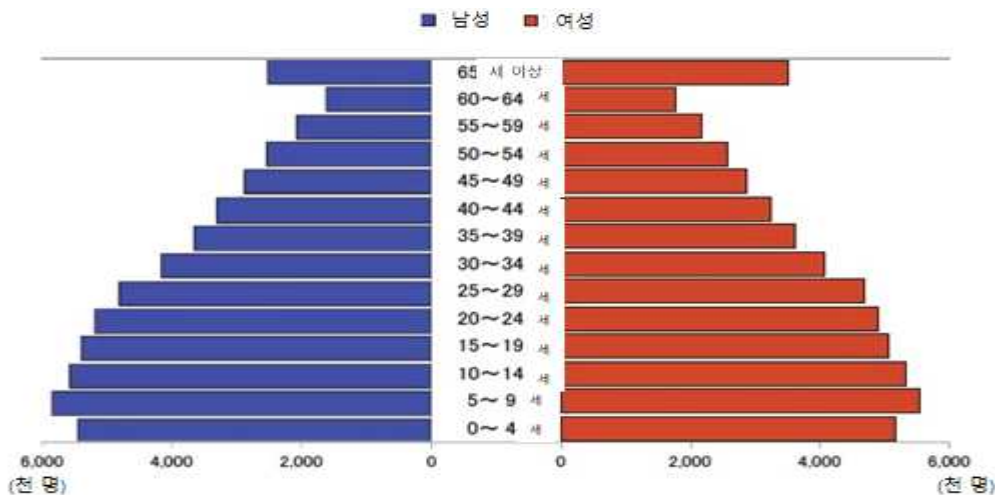
이 글 중 환율은 1필리핀 페소=2.3엔=24.41원<sup>4)</sup>을 사용하였다.

## 2. 필리핀의 경제 상황과 먹거리의 변화

국제연합 경제사회국의 발표에 의하면, 필리핀 추정 인구(2020년)는 1억 958만 명으로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연간 평균 인구 증가율은 최근 5년간 1.4%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인구 구성을 보면, 고령 층보다 젊은 층에서 두터운 피라미드형을 보이고 있다. 20세 미만의 비율이 약 40%로, 0~4세 영유아 세대로 약간 감소 경향을 나타내면서도 젊은 층이 충분히 두꺼움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향후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 소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그림 1).

<그림 1> 필리핀의 인구 구성(2020년)



자료: UN 경제사회국으로부터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에서 재인용

4) 2020년 5월 말일 TTS-달러 환율: 1 필리핀 페소=2.28엔=24.41원, 1미국 달러=109엔=1,231.47원을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국제통화기금(IMF<sup>5)</sup>)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은 5.9%, 1인당 명목 GDP 3,294달러(35만 9,046엔=4,056,462원)을 달성하였고, 과거 5개년 평균도 6%를 넘어서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1).

<표 1> ASEAN 10개국의 과거 5개년(2015~2019) 평균 경제 성장률

	부루 나이	감보 디아	인도네 시아	라오스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평균경제 성장률	0.5%	7.1%	5.0%	6.4%	4.9%	6.5%	6.4%	2.9%	3.4%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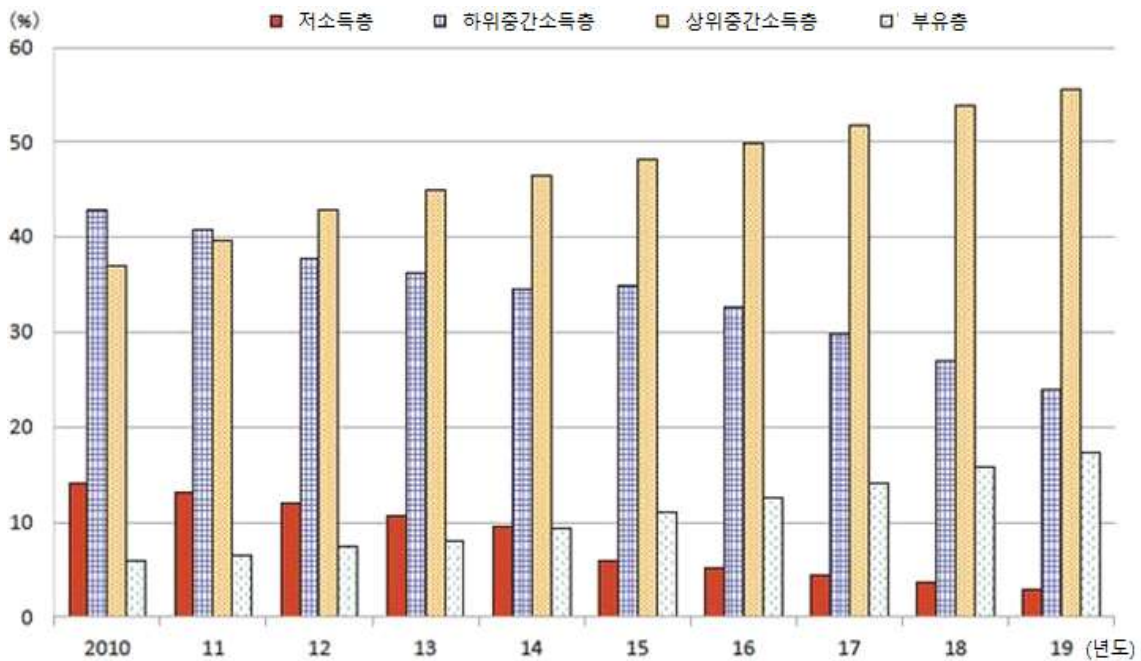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0」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5)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세계은행(IBRD)과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 금융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튼우즈 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국제통화기금(IMF)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기구에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과 그 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출자금은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로 표시한다. 이 기구의 목적과 활동을 살펴보면,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즉, ① **외환시세 안정**: 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 절하 등 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이내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 때 무시되어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졌다. ② **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이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이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③ **자금 공여**: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 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 이고, 3~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했다. 그러나 1980년 IMF·IBRD 합동 연차총회에서 비산유 개도국의 부채 격증에 따른 국제수지악화를 집중 논의하면서 IMF 대부한도 600% 확대, 개도국에 대한 경제구조 조정차관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열린 IMF·IBRD 합동 연차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빈국들에 대한 원조증대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쓰일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지자 1969년 10월 IMF 연차회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 금이나 회원국들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회원국들의 할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는 IMF는 IBRD와 함께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 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개발협력용어집, <https://terms.naver.com/>)

이러한 배경에는 자국 내에서는 서비스업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재외 노동자로부터의 송금<sup>6)</sup>에 의해 개인 소비도 견고한 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며, 국민 소득도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

가구 소득 계층별로 보더라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만 5,000달러(163만 5,000엔 =1,847만 2,050원)을 넘는 세대가 2016년에는 처음 60%를 넘는 등, 상위 중간 소득층 및 부유층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그림 2〉 필리핀의 소득 계층 비율 추이



주: 하위중간소득층을 평균세대가처분소득 5,000~15,000미국 달러, 상위중간소득층을 동 15,000~35,000미국 달러.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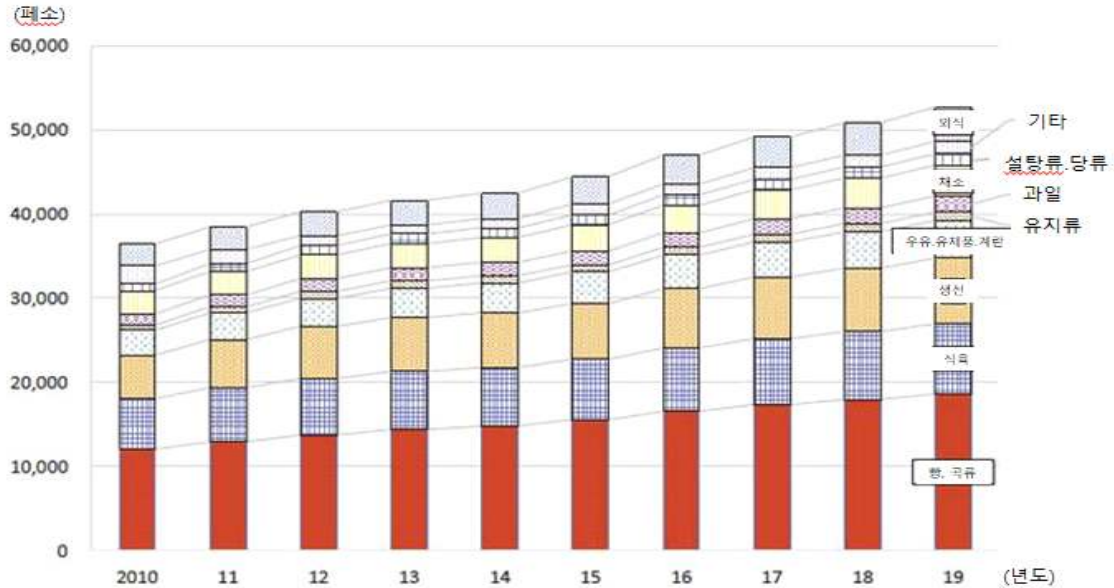
이 같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의 가처분 소득<sup>7)</sup> 증가는 식품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통계 기구(이하 ‘PSA’)에 따르면, 가계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 식품비이며, 2019년에는 전체의 40%를 넘었다. 또 1인당 식품비 지출에서는 많은 품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6) 필리핀에서는 과거 해외 근로자의 송금을 일대 산업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외 고용청, 해외 노동자 복지청과 같은 전문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외 노동자는 OFW(Overseas Filipino Workers)으로 불리고, 이들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GDP의 약 10%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7) 가처분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 DI). 가처분소득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에는 보통 세무통계를 이용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저축 및 소비를 추계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처분소득 = 개인소득 × 개인소득세 = 민간소비지출 + 개인저축(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및 네이버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품목별로 보면, 비교적 고액 지출이 되는 육류와 외식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식품비의 증가는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고품질 단백질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1인당 식품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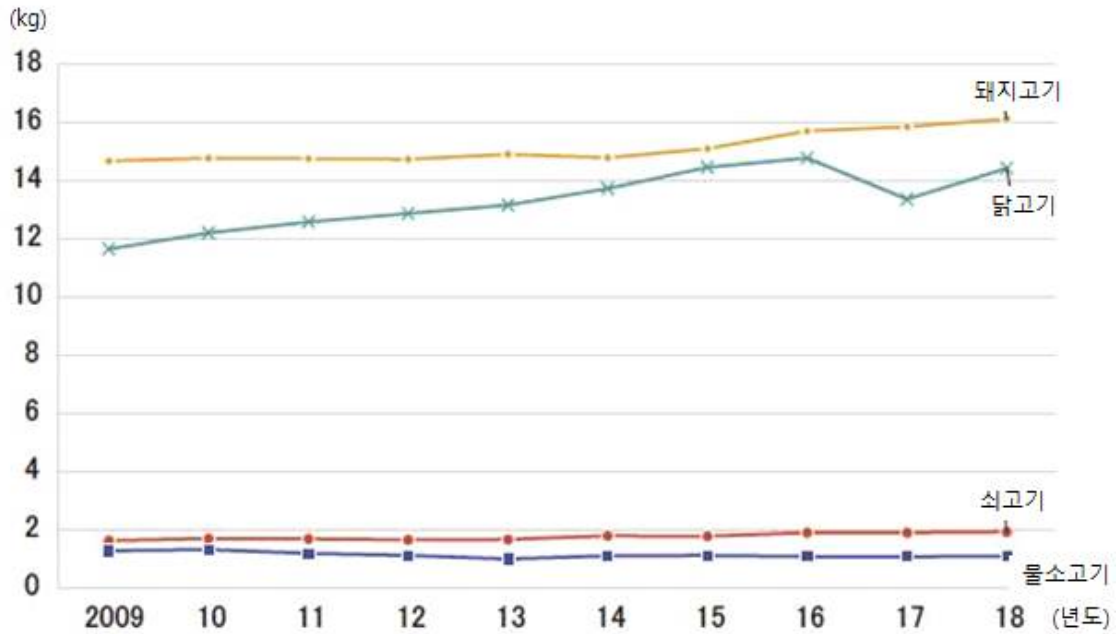
주: 각년도 지출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액으로 산정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농축산업진흥기구” 에서 재인용

### 3. 쇠고기 소비 동향

필리핀의 일반적인 요리의 특징으로 주식인 쌀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쌀에 맞는 부식으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조림이나 볶음 요리를 만들어 먹는 등 쌀과 함께 식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필리핀인들은 당분(糖分)과 염분(鹽分)이 높은 맛을 선호하며, 채소는 곁들이는 정도로 소량 소비에 불과하다. 또한 필리핀인들 중 카톨릭 교도가 83%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교상의 제약이 적어 소비되는 식육 종류나 용도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편이다.

PSA에 따르면, 육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3.51kg(돼지고기 16.09kg, 닭고기 14.40kg, 쇠고기 1.93kg, 물소고기 1.09kg)으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닭고기를 사용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돼지고기에서 닭고기로 수요가 시프트(shift)하여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4, 사진 1). 쇠고기의 경우, 다른 축종과 비교하여 여전히 소비량은 적지만, 기존 소비되는 물소고기 소비량이 떨어지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연간 1인당 식육 소비량 추이



주: 가금육은 가식처리 베이스(뼈 붙은 것). 그 외에는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PSA.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농축산업진흥기구” 에서 재인용

<사진 1> 필리핀 최대 기업 패스트푸드 체인의 닭고기를 사용한 세트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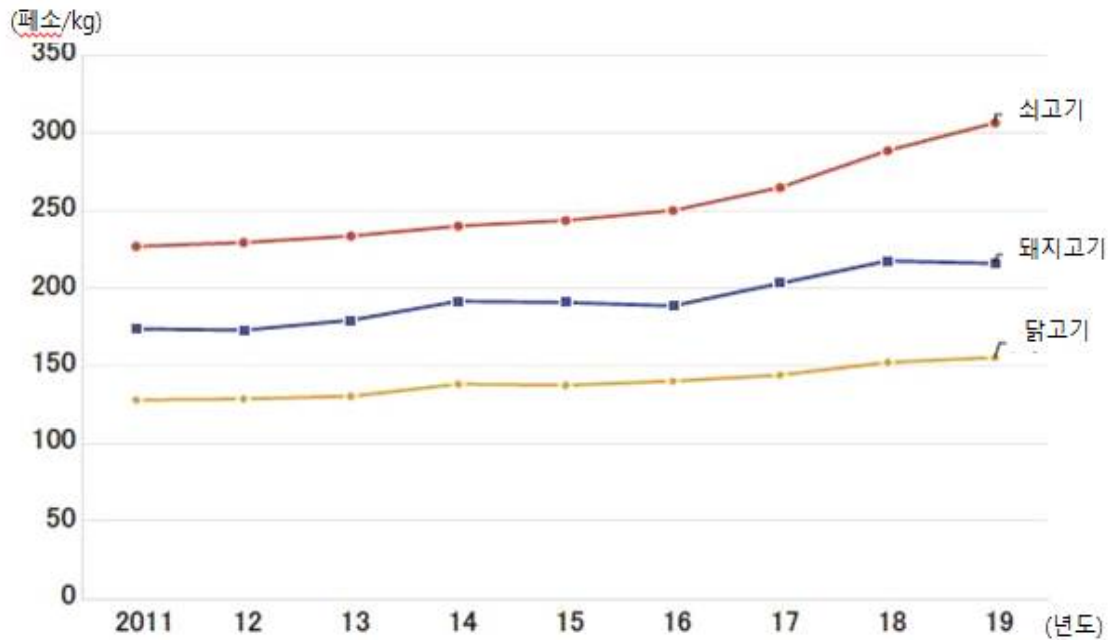


또한 필리핀 농업부 축산국(이하 ‘BAI’)가 이전에 작성한 쇠고기 산업 로드맵에 서는 2020년에 쇠고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을 3kg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하지만, 여전히 돼지와 닭고기 요리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연도까지 수량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식육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식육과 비교하여 쇠고기가 여전히 단가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9년 쇠고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1kg당 307페소(706엔=7,494원)로 돼지고기에 비해 1.4배, 닭고기에 비해 2.0배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 요리가 일반적인 가운데, 쇠고기가 일상적으로 식탁에 차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그림 5).

<그림 5> 식육 소매가격 추이



자료: PSA.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 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그러나 경제 발전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는 일본산 화우(和牛, 와규) 고기나 호주산 Wagyu<sup>8)</sup>고기 등을 포함한 수입 쇠고기 등과 같은 고가의 쇠고기도, 전체에서 보면 적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사진 2).

또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 때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소득이 높은 중국인 경영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쇠고기 소비의 견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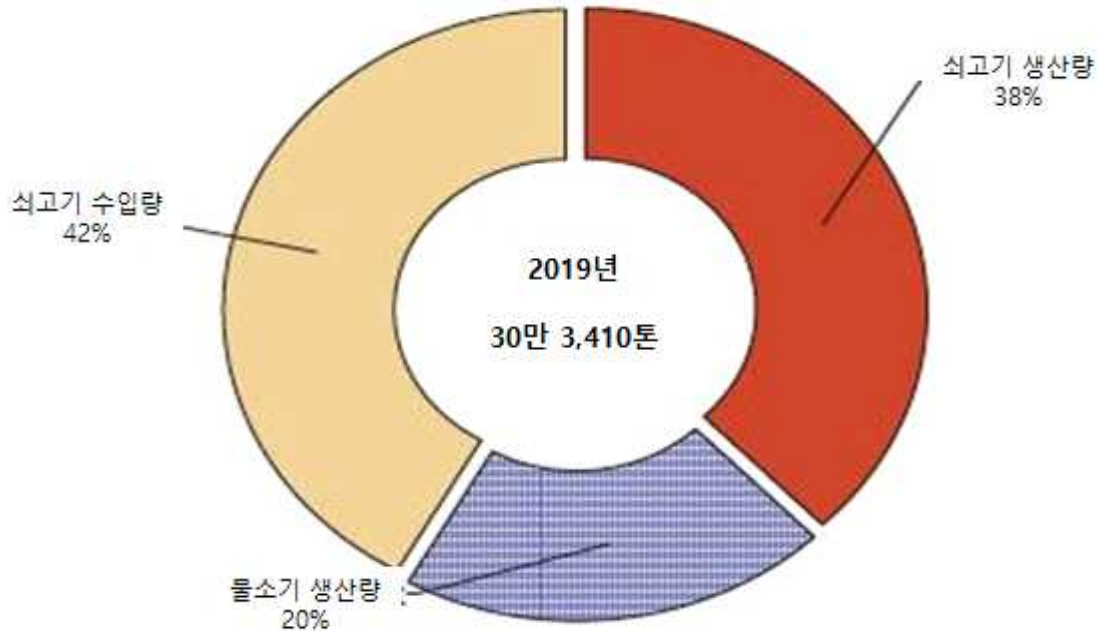
8) 화우(和牛)의 일본 발음이 와규(Wagyu)이지만, 일본 화우와 일본 이외의 국가(특히 호주)에서 생산되어 판매 또는 수입되는 것과 구별을 위하여 일본산은 화우, 그 외에는 Wagyu로 표시한다.

<사진 2> 화우 점두판매 사진(1kg당 7,950페소, 19만 4,060원=18,285엔)



필리핀 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물소고기 포함) 공급량의 내역을 보면, 국산이 58%, 수입이 42%이다(그림 6).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소고기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쇠고기와 구별되지 않고, 후술하는 쇠고기 유통 경로 중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수입 쇠고기와 달리, 국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소비되고 있다.

<그림 6> 쇠고기 공급량 내역(2019년)



주: 쇠고기 및 물소고기는 생산량(생체중)에 부분육 수율 44%를 곱하여 산출.

자료: PSA 및 Global Trade Atlas에서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 4. 육용우 생산

### 4.1. 사육 규모 및 품종

PSA에서는 필리핀 육용우 생산 농가를 (1) 비육우를 21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거나, (2) 송아지 또는 씨암소를 41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거나, (3) 비육우를 10마리 이상, 송아지 또는 씨암소를 2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거나 하는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농가를 대규모 농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를 소규모 농가로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시점에서 사육 농가수 베이스로는 소규모 농가가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1가구당 5마리 이하로 영세한 사육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소 사육농가 중 소규모 농가의 입장에서는 가축은 현금이 필요한 때에 가축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현금화가 가능한 저축 대신으로 소를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워낙 규모가 영세하여 육용우 생산만으로는 생계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농사와 복합 경영을 같이 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다.

BAI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에서 주요 사육되는 품종은 브라만 종<sup>9)</sup>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방목 주체로 사육되고, 마당 등에 자생하는 들꽃 등도 사료로 급여되고 있다(사진 3).

소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에 송아지와 비육소우(肥肉素牛<sup>10)</sup>, 비육 밀소)를 공급하는 측면과 직접 비육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측면 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의 육용우 생산을 지탱하는 존재이다.

9) 브라만 종(Brahman).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포유류. 한국, 미국 중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열대·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몸무게는 암컷 550kg, 수컷 830kg이다. 인도 원산으로 미국에서 수입하여 개량한 종이며, 남아메리카에서는 제뷰(Zebu)라고도 한다. 몸은 길며, 엉덩이 부분은 넓고 풍만하다. 턱밑에서 목·가슴에 이르는 부분까지 피부가 늘어져 주름이 형성되어 있고, 귀는 처져 있다. 털은 짧고, 빛깔이 회색 또는 붉은색이며, 조숙성(早熟性)이다. 피부는 얇고 단단하며, 내분비선이 발달되어 있다. 파리·모기·진드기 등의 기생충과 더위에 잘 견디며, 성질이 거친 편이다. 고기소로서 도체율(屠體率)과 정육률이 높고, 육질이 좋다. 미국 중남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열대·아열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고기소의 교잡종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한우 개량에 활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0)비육소우(肥肉素牛)란 비육을 위해 농장에 들여 온 송아지나 육성단계의 소를 말하며, 비육밀소의 개념에 가깝다. 각 지역의 소나 송아지 거래 관행에 따라 다르지만,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비육농가가 비육을 위해 도입하는 송아지인 4~6개월령 보다는 큰 육성 초기 단계의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 마당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용우



한편 대규모 농가의 주요 사육 품종은 브라만 종의 순수 종이 많지만, 앵거스 종<sup>11)</sup> 종이나 심멘탈 종<sup>12)</sup> 등 육용 전용종과 브라만 종과의 교잡도 보인다(브랑거스 종<sup>13)</sup>: 브라만 종 × 앵거스 종, 심브라 종: 브라만 종 × 심멘탈 종). 또 대규모 농가 중에는 곡물비육장 경영도 존재하는데, 호주 등에서 비육소우를 수입한다<sup>14)</sup>.

11) 애버딘앵거스종(Aberdeen Angus). 고기소의 한 품종.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이다.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이다. 임신기간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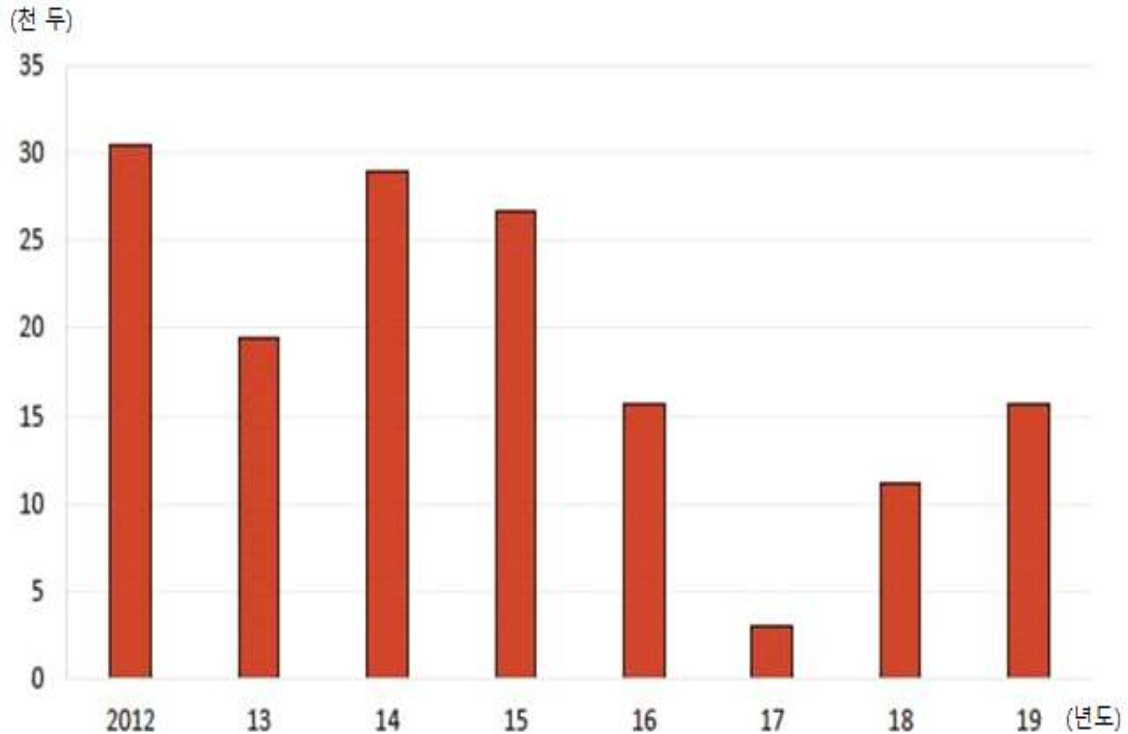
12) 독일계 심멘탈종(Deutsches Fleckvieh)심멘탈종의 스위스 Bern지역에서 기원하였고, 품종명은 이 지역 Canton에 있는 Simmevalley에서 연유되었다. Bern지방에서는 예부터 붉은색 바탕에 흰 반점이 있는 소는 체구가 클 뿐만 아니라 비유능력이 양호하다는 정평이 나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Bern의 Oberland에서부터 서부 스위스 및 중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품종이 분포되어 있다.(출처: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3443/lsbreeds/>)

13) 브랑거스종은 브라만종과 애버딘 앵거스종의 교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이다. 이 품종 작출을 위한 첫 교잡은 1912년 USDA 소속의 Louisiana주 Jeanerett 시험장에서 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Oklahoma주 Welch의 Clear Creek 목장, San Antonio의 Essar 목장에서 각기 별도로 만들어졌다. Brangus종은 1942년 오클라호마에서 품종으로 인정되었고 3/8 Brahman X 5/8 Aberdeen Angus종의 품종 구성비율로 표준화 되었다. 브랑거스종의 피모색은 흑색이다. 뿔은 없고, 가죽이 얇으며, 털은 짧고 매끄럽다. 주둥이 부분이 넓고, 체형은 앵거스종보다 거친 편이나 브라만종에 비해서는 훨씬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귀부위가 특별히 넓고 초생달 모양인 것은 Brahman종의 영향이다. 브랑거스종으로 서의 등록에 실격조건이 되는 것은 유각, 흑색 이외의 모색, 배꼽 앞부분의 백반, 연령에 비해 작은 체구,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거나, 뼈가 얇은 것, 너무 큰 것, 그리고 얇은 가죽, 짧은 털 등이다. Brangus종은 더위와 습기에 강하나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서는 털이 많이 생산되어 추위를 극복한다. 성숙한 암소의 체고는 128cm, 체중은 550kg이며, 수소의 체고는 135cm, 체중은 750kg이다. 브랑거스종은 브라만종의 환경 적응능력 및 항병성과 앵거스종의 비육 능력을 조화 있게 결합한 품종으로 볼 수 있다. 모성애가 강하고 비유능력이 양호해 송아지 육성을 잘하고 도체의 질도 우수한 편이다.(출처: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3443/lsbreeds/>)

14) 호주 생우 수출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2018年 2月号「豪州の生体牛輸出動向-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と家畜疾病管理における変化を中心に-」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alic.go.jp/content/000146090.pdf>).

호주산 생우 수입 마릿수는 2017년에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 후에는 증가 추세에 있다(그림 7).

〈그림 7〉 호주로부터 생우(육용우) 수입 마릿수 추이



주 1: 호주에서 필리핀으로의 수출 마릿수를 필리핀의 수입 마릿수로 봄.

2: HS 코드 01022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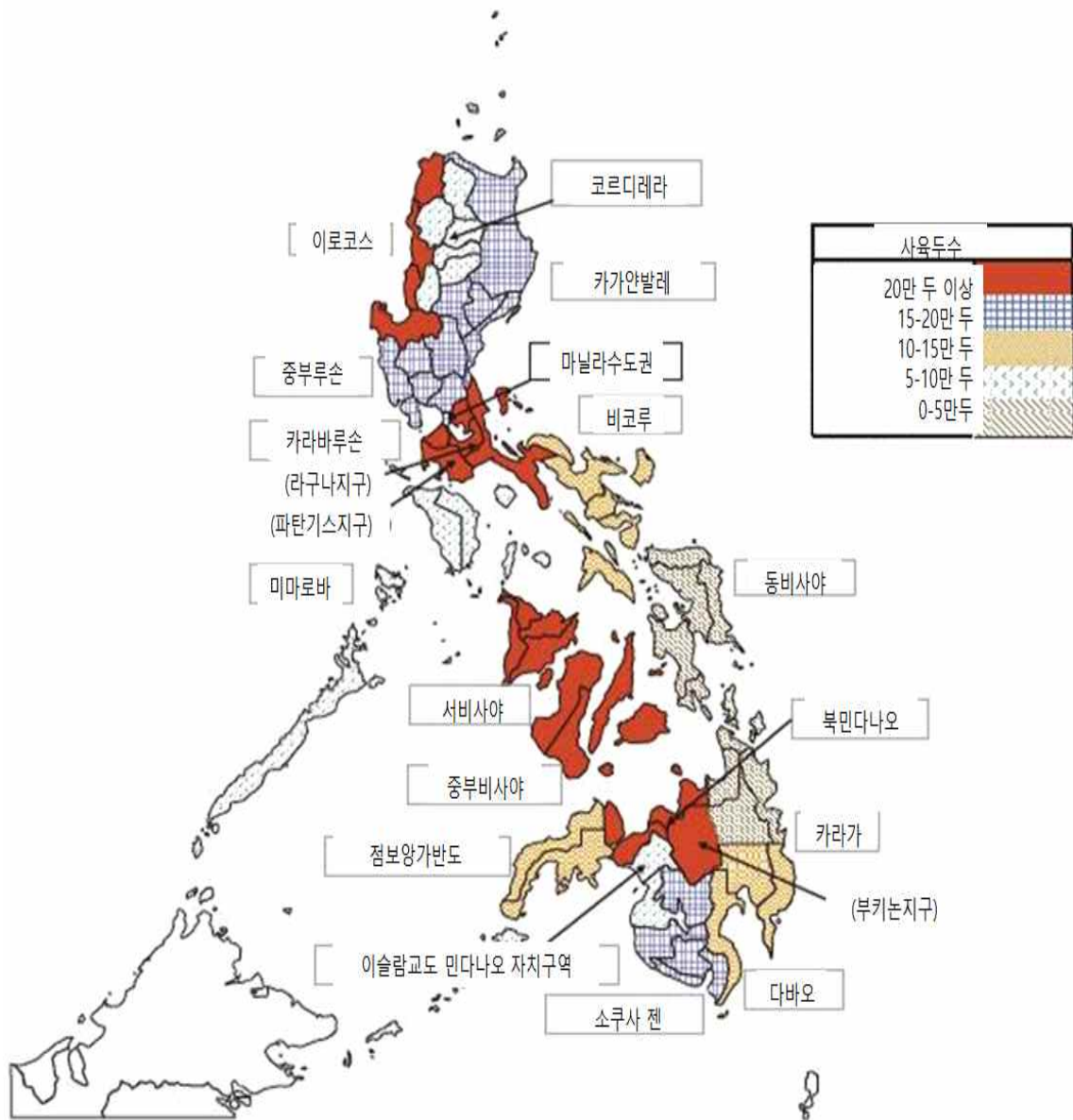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또 이전에는 사육농가 수 베이스로 대규모 농가가 3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6%까지 감소하였다. BAI에 따르면, 대규모 사육 농가 수가 감소한 이유로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육용우를 생산하던 광대한 땅이 목재를 생산하도록 토지이용이 전환된 바 있으며, 펜스 파괴와 가축 살해 등 치안 악화가 진행된 바도 있는 등, 원천적으로 비육우 농장을 경영할 수 없게 된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 4.2. 사육 마릿수 및 생산량

육용우 사육 마릿수를 지역별로 보면, 이로코스 지방, 중부 비사야 지방, 카라바루손 지방, 서비사야 지방, 북부 민다나오 지방에서 사육 마릿수가 많다(그림 8). 또 대규모 농가는 비코루 지방, 카가얀발레 지방, 중부 루손 지방 등 마닐라 수도권을 포함하는 루손 섬 외에, 북부 민다나오 지방에도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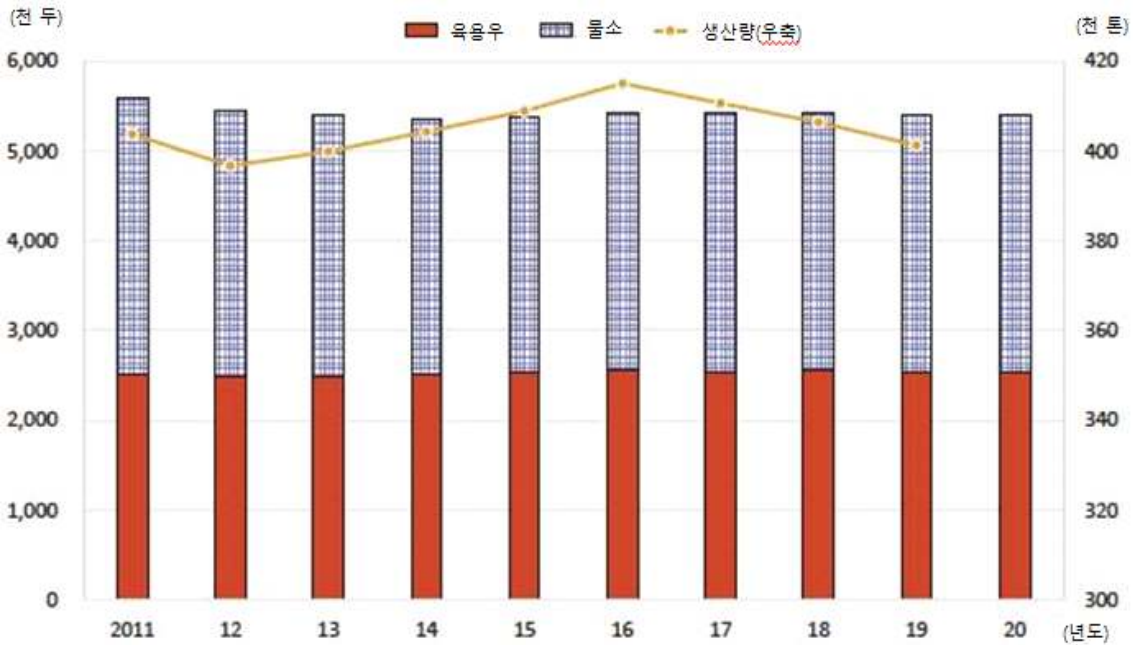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육용우 사육마릿수 분포



자료: PSA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농축산업진흥기구” 에서 재인용

육용우(물소를 포함) 사육 마릿수는 대체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540만 마리로 2011년 피크 이후 20만 마리 정도 감소하였다(그림 9). 이는 주로 물소 사육 마릿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물소는 2011년에는 308만 마리였으나, 2020년에는 287만 마리로 21만 마리 감소하였다. 필리핀 농업부(이하 ‘DA’)에 따르면, 농업 근대화의 진전으로 역우(役牛) 수요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9〉 육용우 및 물소 사육 마릿수와 생산량 추이



주 1: 사육마릿수는 각 년도 1월 1일 시점.

2: 생산량은 생체중 베이스.

자료: PSA.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한편 육용우는 2011년부터 2만 마리의 증가에 그쳤다. 민다나오 섬의 북부 민다나오 지방과 점보양가 반도에서 사육 마릿수 수가 감소한 반면, 곡물비육장 경영이 증가하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근교 카라바루손 지방과 카가얀발레 지방의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 지역이 소비지인 메트로 마닐라 근교로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쇠고기 생산량도 2011년 이후 40만 톤 정도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2019년 40만 1,285톤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되었다.

#### 4.3. 정부의 육용우 농가 지원

필리핀 정부의 육용우 농가 지원 대책으로 기존 육용우 유전적 능력 개량, 환경 적응성, 생산성 주요 질병에 대한 내성 등 높은 품질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품종 개발 프로그램이 전개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시험장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험장에 진 बैं크(Gene Bank<sup>15</sup>)를 정비 후, 각 지역에 인공 수정 센터(이하

15)유전자은행.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정보를 장기간 보존해 두는 시설. 36억년의 역사가 만들어 온 생물의 유전정보는 귀중한 자원으로써 바이오테크놀로지(생명공학)를 사용한 신품종개발이나 신종미생물을 만드는 데 불가결한 요소. 식물의 경우는 종자의 모양으로 보존하는 예가 많지만 세포의 동결건조나 조직배양에 의한 저장도 검토되고 있다. 동물이나 미생물은 수정란의 동결보존, 계대배양이 연구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AI<sup>16</sup>센터’ )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으로써의 인공수정(AI, Artificial Insemination) 보급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냉동 정액은 각 지역의 AI센터 등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등 프로그램 침투를 도모하고 있다.

또 정부는 시험장 등이 보유한 브라만 종 등의 종우(種牛, 씨숫소)를 육용우 농가에 일정 기간 임대하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 외에, 사료, 목초 개발의 기술 지원, 각종 목초 종자와 재배 자재 배포 등을 하고 있다.

#### 4.4. 육용우 농가 동향

이번 현지 조사에서는 루손 섬과 민다나오 섬의 육용우 농가를 방문하였다. 각 농가의 동향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브라만 종에 특화된 효율을 중시하는 육용우 농가(루손 섬 라구나 지구)

루손 섬 중부의 라구나 지구에서 번식을 중심으로 육용우 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의 현재 사육 마릿수는 번식 암소가 100마리, 송아지가 100마리이다. 이 밖에 미경산우<sup>17</sup>)와 씨숫소도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는 브라만 종이다.

라구나 지구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브라만 종처럼 내열성 있는 품종이 맞는다. 그러나 이 농가가 브라만 종에 특화하여 번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1개체에서 얻을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경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비육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1년간 많은 송아지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육하고 있는 브라만 종은 앞에서 말한 경영 방침에 따라 체격이 작은 소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목초(네페아 그라스<sup>18</sup>), 파니캄<sup>19</sup>)류)만으로 사육할 수 있어

16)artificial insemination(인공수정). 인위적으로 채취한 수컷의 정액을 암컷의 생식기 안에 주입하여 수정시키는 일. 가축, 어류 따위의 번식이나 품종 개량에 이용하며, 사람의 불임증에도 시행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17)미경산우(未經産牛). 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 비육용으로 이용할 경우 사료 효율이 낮고, 사육 기간이 긴 단점이 있으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18)napier grass. 가축의 사료로 쓰기 위해 난지에서 재배되는 벼과의 여러해살이풀. 엘리펀트 그라스(elephant grass)라고도 한다. 열대 아프리카 원산으로 20세기 초에 작물화되었다. 풀길이는 2-5m, 줄기 굵기 2-3cm이다. 포복성의 줄기를 다수 분얼하여 지름 1m, 줄기 수 100을 넘는 장대한 주상이 된다. 잎은 가늘고 길며, 큰 것은 길이 1m를 넘고, 폭도 3cm 정도 된다. 가을에 정수리에서 이삭이 핀다. 이삭은 원통형으로 10-30cm, 1cm 정도의 강모가 있다.(출처: 코토뱅크,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株式会社平凡社, <https://kotobank.jp/word/>). 곡물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저렴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열대지역 등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확효율이 우수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출처: 네이버 카페 디엔바이, ‘[녹색산업기술] 일본, 환경산업 최신택향’, 2011.10.29., <https://cafe.naver.com/globalone/1227>)

19)벼과 수수속의 1년생 풀이다. 학명은 Panicum. 꽃의 특징은 직립한 줄기 끝에 원추상의 꽃차례를 붙이고, 이어 갈라진 꽃차례에 작은 화수를 드문드문 붙인다. 잎의 특징 길이 60cm 정도의 벼를 닮은 가늘고 긴 잎을 지닌다. 기타 곡물로 재배되는 수수 외에 섬세하고 시원한 이삭을 화제로 사용하는 혼제그라스, 위르가툼 등의 품종이 있다. 생육지는 초원, 논밭, 화단, 화분 등이며, 크기와 높이는 100~200 센티미터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농가에 따르면, 비육농가와 유통업체 중에는 덩치 큰 소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덩치 큰 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량의 사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방목지도 한정되어 있어 번식 능력이 뛰어난 체격의 작은 소가 최선이라는 것이었다.

AI에 의해 자가 번식한 송아지 가운데 암소는 모두 번식용으로 사육하는 한편, 숫소에 대해서는 브라만 종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회(擧丸)의 외주장(外周長, 바깥둘레의 길이)을 선발 기준으로 씨수소 대상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송아지로 판매하거나 자가 비육한 후에 출하된다(사진 4, 5, 6). 앞으로도 몸이 좋으며 관리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소를 스스로 뽑아, 생산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가겠다는 것이었다.



#### (나) 육용우와 산란계 복합 경영을 하는 육용우 농가(루손 섬 바탄가스 지구)

필리핀 최대 가축시장이 있는 루손 섬 중부의 바탄가스 지구는 산란계 경영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육용우와 산란계 복합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보였다.

이번 조사한 농가는 20년 전부터 산란계 경영을 하고 있으며, 하루 50~60만 개의 계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사진 7, 8). 육용우 경영은 6년 전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사육 마릿수는 육용우 약 1,500마리로, 사육 품종은 브라만 종, 브랑거스 종, 심브라 종이다(사진 9).

정도이다. 북아메리카 원산, 유럽 등에 주로 분포한다.(출처: みんなの花図鑑, <https://minhana.net/wiki/>)



사육하고 있는 육용우 가운데 교잡종과 브라만 종 중에는 수입한 소도 있다. 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수입할 때에는 수송비 포함 1마리당 8,000달러(87만 2,000엔 = 985만 1,760원)의 경비가 들었다는 것이다(사진 10). 호주산 Wagyu 냉동 정액도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액을 활용하여 번식도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사료는 자신의 농지 100헥타르에서 옥수수를 재배하여 옥수수 사일리지로 급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육용우 경영에 대해서는 원래 주체였던 산란계 경영이 현재에도 수입이 좋아, 육용우 방목용 공간을 4~5헥타르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가로 땅을 확장하려는 목표도 서 있지 않아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 앵거스 종을 이용하여 육질 향상을 꾀하는 육용우 농가(민다나오 섬 부키는 지구)**

민다나오 섬은 섬 안에 넓은 토지가 존재하고, 곡물비육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다. 곡물비육장에서는 대형 식품 가공회사에서 나오는 파인애플 통조림 제조 찌꺼기를 주체로 급여하고 있는 농가도 존재하는 등, 풍부한 사료 자원이 있다는 점도 이 지역 사료자원 상의 특징으로 꼽힌다.

부키는 지구는 필리핀 최대 쇠고기 생산량을 자랑하는 민다나오 섬 중에서도 가장 육용우 사육 마릿수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조사에 서는 부키는 지구에서 국내 주요 곡물비육장 중 하나인 대규모 농가를 조사하였다.

사육 마릿수는 번식 암소 36마리, 곡물비육장용 비육우 2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낙농 경영도 전개하고 있어 홀스타인 교잡의 젖소 종을 125마리 사육하고 있다. 사육 품종은 브라만 종, 브랑거스 종이다(사진 11, 12).



이 농가는 뉴질랜드에서 동결 정액으로 유전적 개량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BAI의 연수를 받은 인공 수정 담당 직원을 2명 고용하였다. 번식성적 향상을 위해 이들에게 수정 성공 수당으로 임신우 1마리당 500페소(1,150엔=12,205원)의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조사 시점에서는, 브랑거스 종으로 호주산 Wagyu를 교배한 임신우 24마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태어나는 송아지는 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자가 번식한 송아지는 생후 6~8개월에 젖을 떼고, 곡물비육장에서 16~18개월 비육하여 출하하고 있다(사진 13, 14). 비육 기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통조림 제조 찌꺼기 외에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하루 2회, 아침, 낮) 급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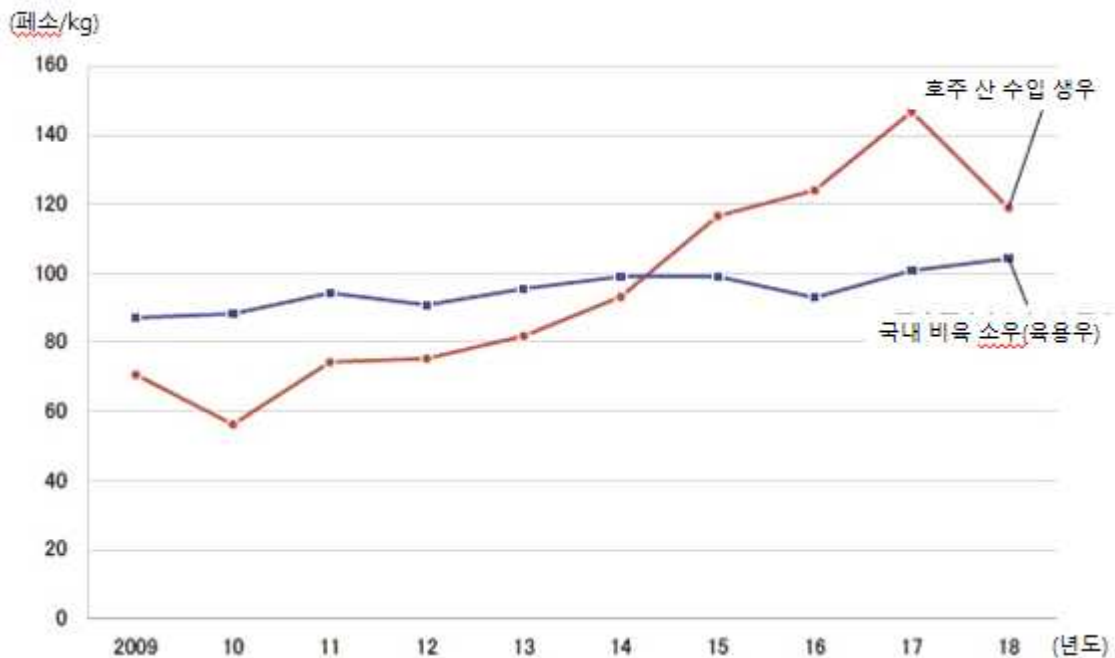
앞으로는 앵거스 종이나 호주산 Wagyu를 교배하여 육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마닐라 수도권의 고급 지향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육용우 판매 가격은 가축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브라만 종의 경우에는 1마리당 8,000~1만 2,000 페소(1만 8,400~2만 7,600엔=19만 5,280~29만 2,920원)에서 거래되는 반면, 브랑거스 종은 동 3만~4만 페소(6만 9,000~9만 2,000엔=73만 2,300~97만 6,400원)로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 5. 쇠고기 유통

필리핀에서 육용우 거래는 주산지에서는 가축시장(부록 참조)과 가축상을 경유할 수도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거래를 한다.

최근 쇠고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비육소우 출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호주에서 수입된 생우 가격은 인도네시아나 2015년 이후에 호주에서 수입이 해금된 중국 등과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어, 국내 비육소우 출하 가격을 넘어 추이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국내 비육소우 및 호주산 수입 생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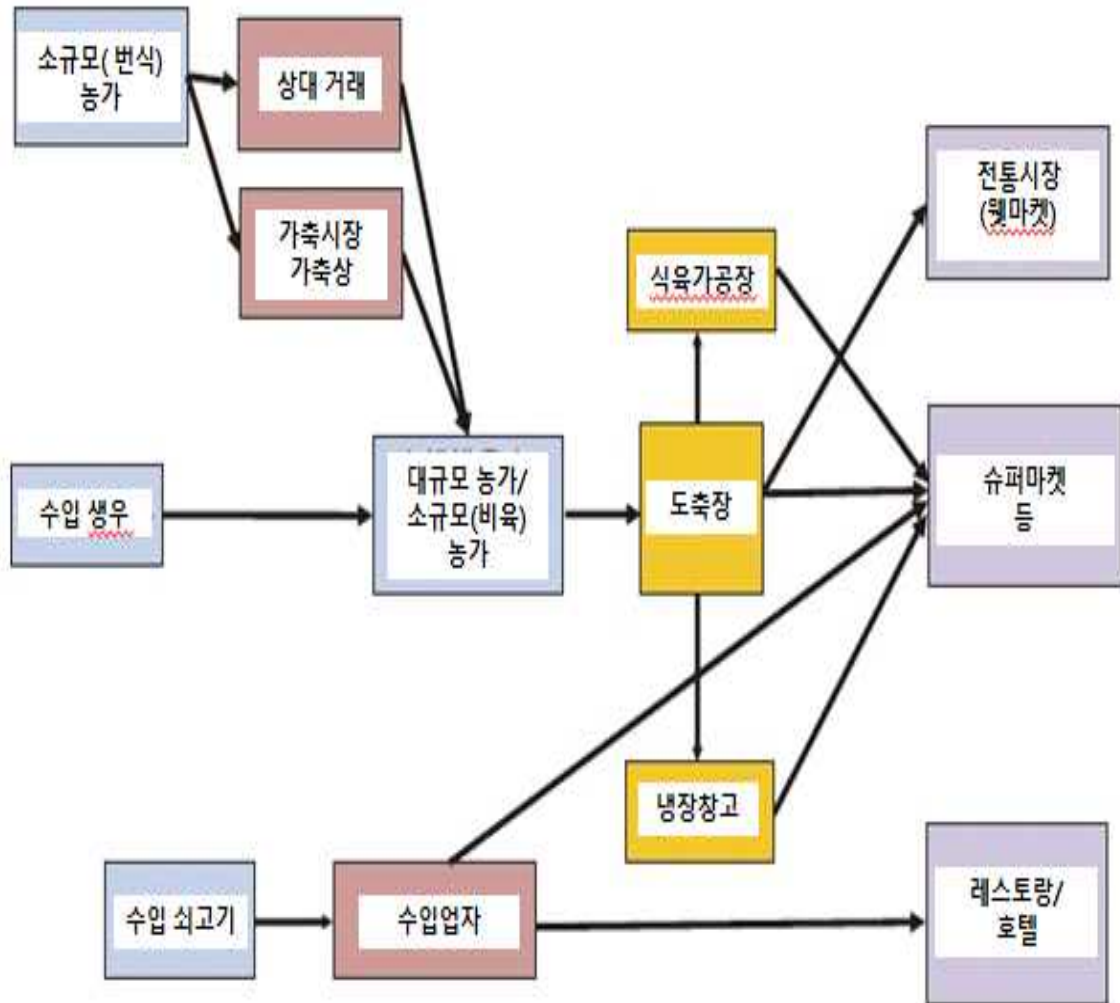


주: HS 코드는 0102이며, 모두 수입 생우임.

자료: PSA. Global Trade Atlas.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肉畜産業진흥기구” 에서 재인용.

필리핀의 소 및 쇠고기 주요 유통 경로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소 및 쇠고기 주요 유통 경로



자료: 정취조사에 의해 ALIC 작성.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에서 재인용.

필리핀에서는 도축장 등의 육류 관련 시설은 필리핀 농업부 국가식육검사서비스 (이하 ‘NMIS’)에 등재하여 인정받아야 한다(조사 시점에서 NMIS에서 조업이 허용된 국내 도축장은 123개소, 식육가공장은 77개소). 또 시설은 AAA와 AA의 두 단계로 분류되며, AAA 시설에서는 수출용 대응이 허가되고 있는 반면, AA 시설에서 처리된 식육의 유통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 또 국내에는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만, 국내 이슬람교도 인구가 편재하고 있는 남부 민다나오 섬에 국한되며, 그 대부분도 닭 관련 시설이다.

도축장에서는 식육검사 실시 기관이기도 한 NMIS에서 임명된 식육검사관이 배치되어, 도축 전후에 육류검사를 하고 있다<sup>20)</sup>.

또한 NMIS에 따르면, 소 지육 등급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필리핀 농업 기준국에서 소 지육 등급에 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도축 후는 전통시장<sup>21)</sup>, 슈퍼마켓 등 소매점으로 유통된다(사진 15, 16). 그러나, 최근 도축장 정비나 콜드체인의 발달 등에 따라 슈퍼마켓 등 근대적인 점포가 증가하여 소매업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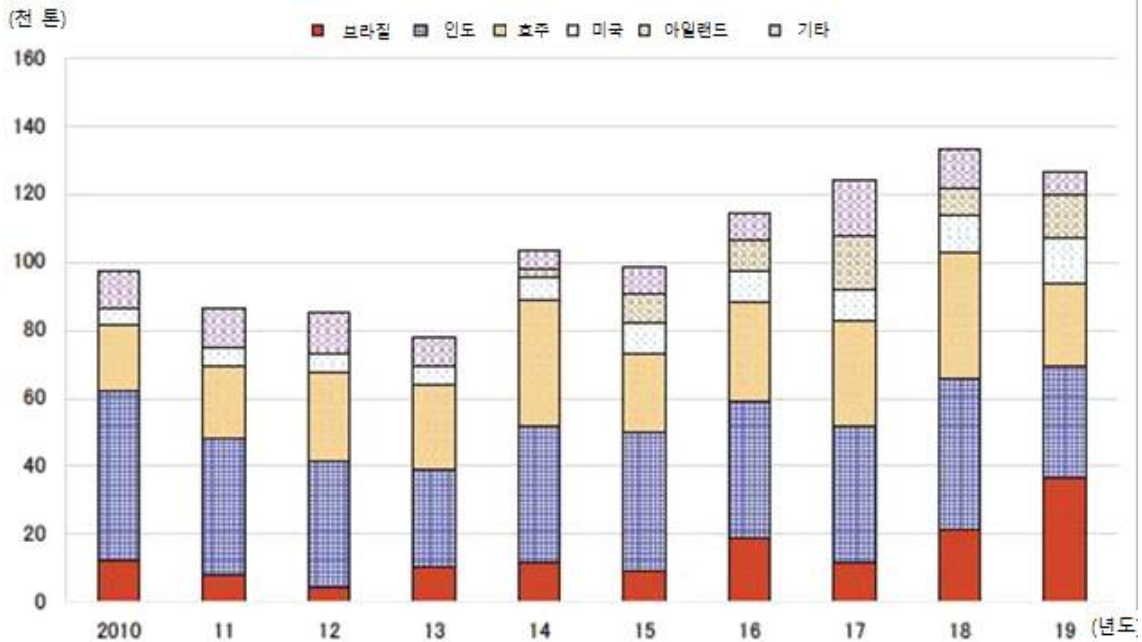
수입 쇠고기는 수입업자를 통해서 직접 호텔과 레스토랑에 배송되며, 식육가공장에서 부분육으로 커팅된 후 전문점과 슈퍼마켓에 배송된다. 특히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고급품으로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유통되는 것이 많다.

## 6. 쇠고기 수입 상황

생우 수입액은 거의 호주에서 하고 있지만, 물소고기를 포함한 쇠고기로 보면, 브라질, 인도, 호주, 미국 및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다(그림 12).

〈그림 12〉 수입 대상국별 쇠고기 수입량 추이

- 20) 조사 시점의 검사 요금은 도축 전: 소 1마리당 10페소(23엔=244원), 도축 후: 1킬로그램 당 25 생타보(0.6엔=6.1원, 1필리핀 페소=100 생타보)였다.
- 21) 전통 시장(젯 마켓, wet market)은 콜드 체인에 따르지 않는 온도체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필리핀에서 쇠고기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온도체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전히 도축 직후의 고기가 신선하다는 소비자 기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 1: HS 코드 0201, 0202..

2: 물소고기 포함.

3: 제품중량 베이스.

자료: Global Trade Atlas.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日本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재인용.

쇠고기 수입량은 최근 쇠고기 소비 증가의 보완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12만 6,844톤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하였다. 수입 대상국별로 보면, 브라질이 3만 6,777톤(동 71.7% 증가), 인도가 3만 2,158톤(동 26.9% 감소), 호주가 2만 4,285톤(동 34.7% 감소)로 3개국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물소고기이다.

필리핀 육류 수입업자 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입량 증가는 수입 쇠고기를 값싸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렴한 브라질산은 먼 거리 때문에 수송기간을 필요로 하지만(약 27일), 패스트 푸드 체인 등 서민적인 외식 산업용 햄버거 패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사진 17). 또 최근에는 아일랜드산에 대한 수요가 EU 내에서 부진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저렴하게 수출되어, 수입량이 증가세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인도에서 수입되는 물소고기에 대해서는 과거 국내 햄버거 체인업체인 줄리비사(Jollibee Foods Corporation, JFC<sup>22</sup>)의 햄버거 패티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22) 줄리비 푸즈(Jollibee Foods Corporation)는 'Jollibee' 브랜드의 퀵서비스 레스토랑(QSR)을 개발, 운영, 프랜차이즈하는 필리핀의 필리핀 회사이다. 자회사는 「Chowking」과 「Greenwich」상품명으로 퀵서비스 레스토랑을 개발·운영·프랜차이즈하는 FRESHN' FAMOUSFOODS, INC., 「Red Ribbon」의 상품명으로 레스토랑을 개발·운영·프랜차이즈하는 REDRIBON BAKESHOP, INC.I.FANC.를 포함하여 레스토랑을 개발·운영·프랜차이즈하는 FRESHN' FIBANC.IBANC.를 포함하여, 레스토랑을 개발·프랜차이즈 하고 있다. 또한 'Yonghe King', 'Hong Zhuang Yuan'과 'San Pin Wang'의 국제 브랜드 및 'Super Foods Group('Highlands Coffee'와 'Pho 24' 포함), '12 Hotpot', 'Sma' 및 'Dunkin' Donuts'에서의 브랜드를 개발·운영하는 자회사와 관련 회사를 가지고 있다.(출처; (일본)REUTER,

법률에 의해 가공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절인 쇠고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사진 18). 그러나 실제로는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등 비합법적인 유통 루트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 실제 수입 물량도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또한 방문 조사 시에는 DA로부터 인도의 물소 도축장으로 수출 승인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 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던 인도산 물소고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필리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상, 최혜국 대우<sup>23)</sup> 쇠고기 수입 관세율은 10%이지만,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할당 관세<sup>24)</sup>를 설치하여 쿼터 내 세율은 각각 30%와

<sup>23)</sup> 'Jollibee Foods Corporation. JFC.PS', <https://jp.reuters.com/companies/JFC.PS>

<sup>23)</sup> 최혜국 대우(最惠國 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을 비롯한 통상에서의 혜택과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수출국 사이의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1948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된 최혜국대우에는 조건부조관과 무조건부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최초로 제3국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혜만을 조약국에게 주거나, 오직 동등한 조건이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얻은 특혜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3국에 제공한 모든 관세양허를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의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GATT의 모든 가입국과 일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최혜국대우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1997년 최혜국대우(MFN)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키로 하는 법안을 승인, 이후 NTR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sup>24)</sup> 할당관세(quota tariff, 割當關稅).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40%로 쇠고기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정책상, 돼지고기 및 닭고기보다 쇠고기의 중요성이 낮고, 수입품도 비교적 입수하기 쉬운 상황이다. 또한 일본과는 일본과 필리핀 경제연계협정(EPA)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모두 수입 관세는 면세이다.

필리핀 육류 수입업자 협회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미 ASEAN 자유무역권이나 일본과 필리핀 EPA등의 제휴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고, 국내에서 수출 가능 품목이 적어 국내 농가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7. 멧음말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축산물 소비도 해마다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경제 성장에 따라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요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쇠고기 생산은 주로 산지가 소비지 근교에 이행하는 등 일부에서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육용우 사육 마릿수나 생산량은 아직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며,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브라질 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품이 증가하는 수요를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생산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앞으로도 저렴한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즈음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면, 낮은 가격 지향이 강한 필리핀에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입에 의한 공급이 유지되어 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은 1억 인구에 6,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부 민다나오 섬을 제외하고는 점차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에도 가깝고, 민다나오 섬 이외에는 태풍 상습지인데, 최근에는 대규모 화산 폭발도 빈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BAI에 의한 인공수정(AI) 보급과 같은 유전적 개량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20년 이상 이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프랑스 상원에서 논의된 증산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앵거스 종이나 홀스타인 종 추진 등 열대라고 하는 필리핀의 사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현지 육용우 생산자 단체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

---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과 함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시행하는 관세로, 2004년도에는 90개 품목이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육류 중 1인당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소비량도 완만하지만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쇠고기 수입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할 수 있도록 국내 쇠고기 생산 기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원책 등에 대한 성과는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장래적으로도 대폭적인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당분간 내수를 충족시키려면 수입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는 ASF(아프리카 돼지열병<sup>25</sup>)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sup>26</sup>) 발생에 따라 세계 식육 유통에 혼란이 생기고, 종전부터 국제적인 쇠고기 수요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가격 폭등도 우려되는 가운데, 자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해 각국으로 수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입 쇠고기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저가 구매가 강한 필리핀이 향후에도 수입에 의한 쇠

---

25)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데, 잠복 기간은 약 4~19일이다. 다만 ASF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링, <https://terms.naver.com/>)

2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병원체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이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ICTV)는 2020년 2월 11일 코로나19의 병원체에 SARS-CoV-2라는 이름을 제안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위원회는 이 바이러스가 2003년 유행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링, <https://terms.naver.com/>)

고기의 안정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부록> 필리핀 최대 가축 시장 Padre Garcia

루손 섬 중부 바탄가스 시에 있는 필리핀 최대 가축 시장인 Padre Garcia 가축시장을 방문하였다.

이 가축 시장은 바탄가스 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소, 물소, 염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사진 1, 사진 2). 시장 관리자에 따르면, 가축거래 마릿수는 요일마다 불균일하며, 금요일이 하루 1,500마리로 가장 많다. 기타 요일에는 하루 300마리 정도가 거래되며, 1주 당 거래 마릿수는 3,000마리 정도이다. 금요일 거래 마릿수가 많은 이유는 과거 거래 관행 상 금요일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여운이 관계자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축시장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오는 매참인(買參人<sup>27)</sup>) 수가 여전히 많아, 출하자도 금요일에 출하 마릿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육용우 등의 반입은 거래일 오전 3시 넘어서부터 열리며, 시장 내 거래의 대부분은 오전 중에는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 시장 내 거래는 출하자와 매참인의 직접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출하자에게는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이 없지만, 매참인은 가축 시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하자와 매참인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출하자가 가축의 체표에 페인트로 표시함으로써 주위에 대해 거래 성립을 알린다(부록 사진 3). 그러나 한번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도 다른 매참인들이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있다. 매참인 중에는 전매(轉賣<sup>28)</sup>) 목적으로 소를 헐값에

27)매매참가인 또는 경매참가인

28)전매(Resale, 轉賣). 구입한 부동산 등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 구입한 부동산

구입하여 되파는 행위로 이득 차이를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 내에는 기준 가격<sup>29)</sup>이 게시되어 있으며, 매참인은 가축의 상태(연령, 생체중)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가격에서 증감시킨 가격을 제시하는 협상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BAI는 공정거래 촉진과 농가보호의 관점에서는 국내 주요 가축시장에 체중계를 설치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일본의 무상 협력에 의해 도입된 전광판을 이용한 거래 가격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가축시장인 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체중계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생체중은 매참인들의 목측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부록 사진 4).

시장 관리자는 바로 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체중 측정을 위한 가축 적재에 시간이 소요됨을 우려하여 조기에 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소 치아에 의한 연령 추정방법에 대한 안목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출하자인 농가는 거래되는 가축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출하자와 매참인 간의 역학 관계와 가격 등에 대한 정보량 차이로 출하자가 가격에 관해 싸우게 되는 경우도 상정되는 등, 거래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즉,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매는 부동산 인기지역이거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많이 일어난다. 전매가 지속되면 가수요가 발생하여 투기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9) 조사 시점의 기준 가격은 생체중 1킬로그램 당 135페소(311엔=3,295원)이었다.

거래 성립 후에는 매찰인이 시장 내에 있는 관리동으로 바탄가스 시에 거래 수수료<sup>30)</sup>를 지불하고, 가축의 이동 증명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구매한 가축을 시장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부록 사진 5, 6).



30) 조사 시점에서 거래 수수료는 육우 1마리당 100페소(230엔=2,441원), 염소는 동 10페소(23엔=244.1원)이었다.

## 참고문헌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3443/lsbreeds/>)

コトバンク,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株式会社平凡社, <https://kotobank.jp/word/>).

小林智也, 小林誠, ‘フィリピンの牛肉需給に関する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7月号,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2018年 2月号「豪州の生体牛輸出動向-アニマルウェルフェアと家畜疾病管理における変化を中心に-」(<https://www.alic.go.jp/content/000146090.pdf>).

(일본)REUTER, ‘Jollibee Foods Corporation. JFC.PS’, <https://jp.reuters.com/companies/JFC.PS>)

みんなの花図鑑, <https://minhana.net/wiki/>)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0」

Euromonitor International

Global Trade Atlas

PSA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개발협력용어집,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n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카페 디엔바이, ‘[녹색산업기술] 일본, 환경산업 최신키술 동향’, 2011.10.29., <https://cafe.naver.com/globalone/1227>)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